인문연구 제92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20. Vol. 92, No. 1, pp.59~94
http://dx.doi.org/10.21211/JHUM.92.3

재난의 기록, 기억을 통한 연대*

곽은희**

<차 례>

1. 들어가며
2. 기억・역사・성찰: 『금요일엔 돌아오렴』
3. 어린 10대에서 시민으로: 『다시 봄이 올 거예요』
4. 나가며

【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재난의 글쓰기 가운데 하나로 세월호 참사 기록물들을 살펴보면서 재난의 기록이 어떻게 기억을 통한 연대로 이어지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재난의 기록을 촉발한 것이 '서사화할 권리(right to narrate)'라고 보고, 연구 대상 텍스트를 논픽션 장르로 확장하였다. 먼저 세월호 유가족 육성기록 『금요일엔 돌아오렴』을 분석하면서 왜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유가족이 될 수밖에 없는지, '기억・역사・성찰'의 측면에서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2068120)
** 동아대학교 기초교양대학 조교수

살펴본다. 다음으로 『다시 봄이 올 거예요』를 분석하면서 생존학생과 형제자매들의 기억이 어떻게 세계에 대한 비판적인 물음과 실천으로 이어지게 되는지 살펴본다. 재난을 기억하는 일은 지극한 슬픔 속에서도 고통의 순간을 거슬러 재난의 심층을 탐사하는 잠행과도 같다. 그 잠행은 재난 속에서 심층 구조를 드러내 보이는 신자유주의 통치성 문제를 대면하고 대안적 지평을 사유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이다. N개의 고통을 담은 N개의 서사가 어떻게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연대로 이어지는지, 유가족과 생존학생, 형제자매들은 어떻게 새로운 주체로 변이되는지 추적한다.

주제어: 재난, 세월호, 고통, 서사화할 권리, 기록, 기억, 연대, 슬픔, 외존(外存), 규율권력, 안전권력, 연대, 신자유주의, 통치성

1. 들어가며

재난의 글쓰기는 고통으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언어 안에 형상화되지 않는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수동적인 격동을 받아들이면서 시작되며, 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절박함으로 인해 탄생한다.[1] 재난의 글쓰기는 또한 슬픔을 겪으면서 깨닫게 되는 주체의 취약성과 불완전함을 글쓰기 형태로 드러낸 것[2]이기에 상실로부터 기원하는 연대의 가능성을 수반한다. 오직 재난

1) 모리스 블랑쇼 지음, 박준상 옮김, 『카오스의 글쓰기』, 그린비, 2012, pp. 86-89.

2) 곽은희, 「슬픔의 공동체와 재난의 글쓰기」,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제77집, 2016. 8, p.110.

만이 지배에 대해 거리를 설정하는 까닭에[3] 재난의 글쓰기는 우리 시대를 규율하고 있는 통치 메커니즘을 조망하며 그 전환점을 마련한다. 이 글에서는 재난의 글쓰기 가운데 하나로 세월호 참사 기록물들을 살펴보면서 재난의 기록이 어떻게 기억을 통한 연대로 이어지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 기록물들은 애초에 "아이들의 영혼과 다른 희생자 분들의 영혼을 위해 작가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록을 하는 것뿐"[4]이라는 소박한 바람으로 시작되었지만, 기원의 심층을 따져보면 그러한 기록을 촉발한 것은 다름 아닌 '서사화할 권리(right to narrate)'이다. 여기서 '서사화할 권리'란 자신의 고통을 특별한 서사로 만들어낼 권리를 뜻한다. 지젝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나 잠재적으로 희생자라는 점에서 고통을 서사화할 권리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5]이다. 또한 권리는 권위적인 권력과 특권의 주변부로부터 의미작용한다[6]는 점에서 부상과 불의의 기억을 되살려내는 고통의 서사화는 고통당하는 이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과 중첩되어 있다.

호미 바바의 논의에서 '서사화할 권리'는 단순한 언어적 행위라기보다는 자유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인 관심을 은유하고 있으며, 들릴 권리이자 인식될 권리, 재현될 권리를 뜻한다. '서사화할 권리'는 근본적으로 의사소통 행위이므로 사람들을 서로 연관시키고 결합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서사화할 권리는 시민 생활의 표지이며,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이 권리에 등지고 있는 사회는 귀를 닫고 있는 침묵의 사회로 치닫게 된다.[7] 이 글에서는 평등

---

3) 모리스 블랑쇼 지음, 박준상 옮김, 앞의 책, p.34.

4) 416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 『금요일엔 돌아오렴: 240일간의 세월호 유가족 육성기록』, 창비, 2015, p.5.

5) Slavoj Žižek and Glyn, *Conversation with Žižek*, Cambridge, UK: Polity Press, 2004, p.141.

6) 호미 바바 지음, 나병철 옮김,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2002, p.29.

7) 서사화할 권리에 대한 호미 바바의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함.

과 권리의 언어에 부여된 '서사화할 권리'를 보다 넓은 지평에서 바라보고 연구대상을 논픽션 장르로 확장하였다. 천정환이 지적한 대로 '문학가'의 일이 '문학' 안에만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관습이나 관념은, 시와 소설을 중심으로 최대한 좁게 구획된 '문학' 장의 관습과 1980년대식 리얼리즘(론) 및 민중·민족 문학에 대한 반동 형성으로 확립된 개인주의·자유주의적 문학주의의 소치의 가능성이 높다.[8] 실제로 4·16세월호 참사 이후 4·16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애도하려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다양한 노력이 등장하였다.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담는 구술작업에서부터 희생자의 유품이나 사진, 영상, 추모객들이 남긴 비망록에 이르기까지 재난이 남긴 모든 흔적들을 수집하고 기록하고 보존하는 성과들[9]이 그러한 예이다. 기존의 문학장에서 주류 장르였던 시와 소설이 참사 앞에서 실패를 맛보거나 새로운 언어 형식을 찾아 암중모색하는 와중에, 독자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인 것이 기존 문학장에서는 주변적 장르에 속해 있던 르포와 인터뷰, 그리고 '받아쓰기'[10]였다. 이러한 현상들은 4·16 세월호 참사 이후를 사유하는 데 보다 유의미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이 글에서는 분석 대상을 육성 증언과 구술 기록과 같은 논픽션 장르로 확장함으로써 필자의 선행연구가 지니던 분석 대상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한다.[11] 르포와 구술기

Homi K. Bhabha, "The Right to Narrate", http://www.harvarddesignmagazine.org/issues/38/the-right-to-narrate (2019. 6. 30. 검색).

8) 천정환, 「'세월', '노동', 오늘의 '사실'과 정동을 다룰 때 - 논픽션과 르포의 부흥에 부쳐」, 『세계의 문학』 제155호, 민음사, 2015년 봄호, p.185.

9) 정원옥, 「재난 희생자들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 재난참사 기억프로젝트팀 지음, 『반복된 참사 꺼내온 기억 대한민국 재난 연대기: 재난을 묻다』, 서해문집, 2017, p.62.

10) 김형중, 「문학과 증언: 세월호 이후의 한국문학」,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감성연구』 제12집, 2016. 3, p.50.

11) 필자의 선행연구가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시와 소설을 분석 대상으로

록과 같은 논픽션 장르는 사실의 압도적인 힘에 의지해 사건을 기록하므로[12] 공감(sympathy)의 원천을 상상력에 국한시키지 않으며, 서사의 주체가 될 가능성 역시 작가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열어둔다. 재난을 맞닥뜨린 유가족, 생존학생, 형제자매들은 구술을 통해 자신의 고통을 직접 서사화함으로써 스스로를 주체화[13]한다.

논픽션 장르에서 공감은 고통을 겪은 이들이 어떻게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들고 직시하게 되는지[14]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재난에 대한 원인을 추적하는 데서 시작된다. 재난이 일어나게 된 근원적인 요인들을 캐묻는 과정은 구조화된 재난에 대한 대면을 수반함으로써 모든 이가 잠재적인 유가족이라는 각성에 이르게 한다. 이러한 각성의 순간, 고통의 언어는 권리의 언어로 승화되고 유가족은 시민으로 거듭나며 반복되는 재난을 멈추기 위한 동시대인의 책임이 촉발된다.

이 글에서 분석할 텍스트는 416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에서 펴낸 『금요일엔 돌아오렴: 240일간의 세월호 유가족 육성기록』(2015)과 『다시 봄이 올 거예요: 세월호 생존학생과 형제자매 이야기』(2016)이다. 『금요일엔 돌아오렴』에서는 영상팀, 사진팀, 구술과 기록관리를 위한 학자팀이 모여 240여일 간 유가족들이 겪은 내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은 유가족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평범한 이들을 위한 것으로, 모든 사람들

삼았다면, 이 글은 그 후속작업으로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이 쓴 유가족 육성 증언집과 생존학생 및 형제자매 구술 증언집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12) 김형중, 앞의 논문, p.54.

13) 자식을 잃고 또 정권과 싸우는 과정에서 세월호 유족의 주체성은 극한의 상실과 슬픔을 힘으로 삼아 재구성되었다. 유족들은 사건의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원인뿐 아니라 사건의 본질을 물으면서 한국 사회의 제모순을 문제 삼는다(천정환, 「가족들과 한국 민주주의」, 『자음과 모음』 제25호, 2014, pp.263-265).

14) 416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2015), 앞의 책, p.6.

이 왜 잠재적인 유가족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성찰하고 있다. 재난의 역사는 그러한 성찰을 동반할 때 비로소 개인의 문제, 개인의 슬픔으로 축소되지 않는다. 2장에서는 이 문제를 '기억·역사·성찰'의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다시 봄이 올 거예요』에는 생존학생 11명과 형제자매를 잃고 어린 나이에 유가족이 된 15명이 보내온 시간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정작 자기 목소리로는 직접 기록되지 못한 이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애들, 학생, 누군가의 자식, 어린 피해자'로만 존재했던 사회적 10대들이 구술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금요일엔 돌아오렴』과 변별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희생된 친구들과 자식을 잃은 부모님 앞에서 이들은 자신의 상처를 돌볼 여력이 허락되지 않았으며, 친구와 형제자매를 잃은 마음을 털어놓지 못했다. 3장에서는 허락받지 못한 애통함으로, 침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고통[15]을 대면하며 이들의 기억이 어떻게 세계에 대한 비판적인 물음과 실천으로 이어지게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기억의 과정을 통해 어떻게 10대들이 미성숙이라는 종래의 프레임을 깨고 시민으로 고양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재난을 기억하는 일은 지극한 슬픔 속에서도 고통의 순간을 거슬러 재난의 심층을 탐사하는 잠행과도 같다. 그 잠행은 재난 속에서 심층 구조를 드러내 보이는 신자유주의 통치성 문제를 대면하고 대안적 지평을 사유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이다. 수용소 문학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기억의 연대화'[16]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록과 기억은 비극을 개인적인 차원

15) 416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 『다시 봄이 올 거예요: 세월호 생존학생과 형제자매 이야기』, 창비, 2016, p.345.

16) 최성은, 「폴란드 수용소 문학(Literatira Obozowa)에 나타난 역사적 현실의 미학적 구현방식에 관한 연구(2)-소비에트 강제노동 수용소를 다룬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아시아·중동부유럽학회, 동유럽발칸학□제13권 제1호, pp.206-214.

에서 형상화하는 것을 넘어 국가재난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민주적 공동성[17]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모색하도록 촉구한다. 이 글은 앞으로 'N개의 고통, N개의 서사'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연대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2. 기억・역사・성찰 : 『금요일엔 돌아오렴』

재난을 기억하는 일은 재난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는 유일한 보호막이다. 재난의 한 가운데에서 유가족들은 고통에 점유된 상태에 놓여있지만 재난에 굴복할 수는 없는 까닭에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몸서리쳐지는 고통"[18] 속에서도 재난의 순간을 기억한다.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어찌할 줄 몰라 하는"[19] 유가족으로 하여금 기필코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은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20]한 절실한 의지이다. "움직이지 말라고 방송한 선장이나 선원도 그렇고, 한 시간 넘게 구조요청을 했는데도 왜 해경이 안 구했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21]냐는 유가족의 증언은 세월

17) 황종연, 「국가재난시대의 민주적 상상력」, 김애란 외 지음, 『세월호를 바라보는 작가의 눈: 눈먼자들의 국가』, 문학동네, 2014, p.132.

18) 유해종(2학년 1반 유미지 학생의 아버지) 구술, 정미현 기록, 「죽은 뒤 지킨 딸의 약속, 아빠와 함께한 하늘여행」, 416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2015), 앞의 책, pp.49-50.

19) 허영무(2학년 2반 길채원 학생의 어머니) 구술, 배경내 기록, 「엄마 없는 세상을 살아갈 딸을 걱정했는데 딸을 먼저 보냈어요」, 416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2015), 앞의 책, p.221.

20) 유해종(2학년 1반 유미지 학생의 아버지) 구술, 정미현 기록, 앞의 글, 416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2015), p.50.

21) 전민주(2학년 3반 신승희 학생의 어머니) 구술, 유해정 기록, 「진도에서 왜 울고만 있었을까」, 416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2015), 앞의 책, p.82.

호 참사의 진실이 규명되지 않는 한 누구도 세월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선언한 고통의 언어이다. 사랑하는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에 그 대상에 부과되었던 모든 리비도를 철회시켜야만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지만,[22] 진실이 규명되지 않는 한 그 리비도를 철회할 수 없다. 유가족들이 거리로 나와 연대하면서 조직적으로 '기억투쟁'[23]을 벌이는 것도 세월호에 대한 기억이 점차 지워지는 데 반해 진상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진상 규명을 향하는 한 기억투쟁은, 비록 그 기억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살다 갔다는 이야기를 남기고 싶"[24]다는 소박한 바람으로부터 연원한다 하더라도, 유가족을 불온화하는 일체의 시선[25]과 맞서 싸우는 투쟁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 블로그를 열어 떠나보낸 이들의 '공통된 기억의 저장소'[26]를 만들고 "매월 만나서 애들 생

22) 프로이드 지음, 윤희기·박찬부 옮김, 「슬픔과 우울증」,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열린책들, 2019, p.245.

23) 세월호 참사에서 과거의 재난과 다른 점은 유가족들이 뭉쳐서 조직적으로 '기억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기억을 지우려는 측에서는 '국가에 기여하지 않고 과도한 보상을 요구한다'는 담론을 만들어 '기억 투쟁'을 '보상 투쟁'으로 바꾸려 했다(조병희, 「세월호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기획, 장덕진 외 지음, 『세월호가 우리에게 묻다』, 한울아카데미, 2015, pp.22-25).

24) 허영무(2학년 2반 길채원 학생의 어머니) 구술, 배경내 기록, 앞의 글, 416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 (2015), 앞의 책, p.212.

25) "이웃들은 아직도 안 끝났냐고 해. 그러면 설명을 다 해주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끝내냐고. 그런데 바깥에서는 그게 아닌가봐. '너희들 보상 많이 받았잖냐. 너희들 10억씩 받았는데 더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 나오면 기가 막히지. 보상의 보자도 모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고 나면 그제서야 사람들이 '아, 그랬느냐'고 해. 언론 플레이가 진짜 무서운 거야"(유해종(2학년 1반 유미지 학생의 아버지) 구술, 정미현 기록, 앞의 글, 416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2015), 앞의 책, p.63).

26) 박종대(2학년 4반 박수현 학생의 아버지) 구술, 박현진 기록, 「진상규명은 우리 아들이 내준 숙제인제 안 할 수 없잖아요」, 416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2015), 앞의 책, p.199.

일 때 되면 애들을 추모"[27]하는 일들은 시간의 흐름 앞에서 희미한 잔상으로 흩어져가는 기억을 보존하고, 재난으로 인한 고통과 문제적 상황을 공동의 문제로 다룸으로써 재난의 기억을 연대화하기 위함이다. 재난의 기억이 사회적 문제로 수렴되지 못한 채 개인적인 슬픔에 머무는 한 공동선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 그의 이야기는 통곡이 아니라 흐느낌조차 새어나오기 힘든 억눌린 슬픔에 가까웠다. 부모로서, 신앙인으로서, 시민으로서 끝도 보이지 않는 고통과 혼란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철이 지났다며 부랴부랴 짐을 싸는 이들이 보여준 애도의 깊이가, 잊지 않겠다던 약속의 호흡이 얼마나 얄팍한 것이었나 돌아보게 된다. 슬픔 속에서도 어머니는 한걸음씩 내딛고 있는 중이다. 그에게는 슬픔을 멈추지 않을 권리가 있다.[28]

유가족이 겪어왔던 시간을 육성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기억의 공유를 통해 이들에게 슬퍼할 권리가 있음을 사회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한 기록자는 "부인(否認)과 망각의 바다를 헤엄쳐, 세상에 승희와 단원고 학생들의 흔적을 그리고 진실을 전하고자 했던 그의 간절함이 활자의 징검다리를 건너 사람들의 가슴에 닿았으면 좋겠다"[29]고 고백한다.

> 소연이가 그렇게 되고 방 정리를 하는듸 상장이 많이 나왔시유. 그걸 정리허는듸 눈물이 얼매나 나오던지… (중략) 소연이 장례식 끝나

27) 장순복(2학년 7반 이준우 학생의 어머니) 구술, 명숙 기록, 「내 마음을 자꾸 키워가려고 해요」. 416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2015), 앞의 책, p.258.

28) 배경내(작가기록단), 416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2015), 앞의 책, p.211.

29) 유해정(작가기록단), 416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2015), 앞의 책, p.66.

고 바로 죽어버리고 싶었어유. 한밤중에 24시간 편의점에 가서 소주 대여섯병을 마시고 정신을 잃어버린 적도 있어유. 길바닥에 자고 있으면 119 구급차가 와서 실어다주고, 다시 또 실어다 주고 그랬어유.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유. 살 의욕이 없었어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대책이 없어유. 머리에 떠오르는 게 아무것도 없어유.

(중략) 제가 앞으로 살 계획을 소연이허고 함께허것다고 꿈꿨는듸 이제 모든 게 사라져버린 것 같어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아무런 의미도 없고, 깜깜혀유.[30]

슬픔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의존성을 이론화하는 데 중요한 관계적 끈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맺은 관계의 속박에 묶여 있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드러낸다. 슬픔은 우리가 항상 흠집 하나 없이 본래의 온전한 모습 그대로 있을 수 없음을, 관계에 의해 구성될 뿐 아니라 박탈된다[31]는 것을 깨닫게 한다. 단장지애의 고통[32]을 겪으면서 유가족들은 삶이 송두리째 뿌리 뽑히고 전 존재가 흔들리게 되는 카오스의 처지에 처한다. 유가족들은 이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옛날에 행복했던 가정으로 돌아갈 순 없"는 귀환불가능한 상태, "뭘 해도, 아무리 즐거운 일을 한다 해도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할 것 같"[33]은 상태에 놓여 있다. "인생에 즐거운 것이

30) 김진철(2학년 3반 김소연 학생의 아버지) 구술, 김순천 기록, 「세상에 딸 하고 나, 둘만 남겨졌는듸, 그 아이를 잃었어유」, 416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2015), 앞의 책, pp.99-106.

31) 주디스 버틀러 지음, 양효실 옮김, 『불확실한 삶: 애도와 폭력의 권력들』,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8, pp.49-56.

32) 세월호 참사는 복도훈이 에우리피데스의 「탄원하는 여인들」의 한 대사 "인간들에게 죽은 자식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느냐"를 인용하며 정의한 대로 "자식이 부모나 조부모보다 먼저 죽는 단장지애(斷腸之哀)의 사건"이다(복도훈, 「애도와 인륜성」, 『말과 활』 5, 2014. 7-8월호, p.63).

33) 임종호(2학년 9반 임세희 학생의 아버지) 구술, 고은채 기록, 「진도에 빈자리가 많아지니 더 못 떠나겠더라고요」, 416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2015), 앞의 책, p.285.

없고, 삶에 의욕도 없고, 사람들도 싫고 (중략)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없"[34]다는 증언이나, "산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무 데로도 나아갈 수 없"[35]다는 증언은 자식의 억울한 죽음으로 인해 처해진 카오스 상태를 드러낸다. 그러한 카오스의 상태는 부모의 실존이 아이와의 관계를 통해서 비로소 가능했음을 증명하며, 완전히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의 삶이 타자에게 양도되어 있음[36]을 드러낸다.

> 제가 한창 슬픔에 젖어 있던 무렵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딸과 아들을 잃은 부모를 만났어요. 그분이 고맙게도 위로를 해주고 가더라구요. '아, 그 당시에 나는 뭐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남의 얘기였고 나와 먼 얘기였는데 이렇게 내가 위로를 받는구나… 다른 사람의 아픔을 껴안는다는 거 그전에는 전혀 생각 못했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모른 체하고 살았던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 우리도 잘못한 게 있어요. 밀양 송전탑, 강정마을 주민들, 쌍용자동차 해고자들… 휴, 그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저희는 뭐 하고 있었나요? 전혀 생각을 안 했어. 그런 거에 대해서. 나만 보람 있게 잘살면 된다는 그런 거였지. 다른 사람의 고충이나 힘든 것들을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의(義)를 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여기서 터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요새는 그래요. 요만한 아이들을 볼 때마다 좀 불안해요. 건강하게 잘 자라서 나이 들고… 그렇게 잘 생활했으면 좋겠는데 저 아이도 위험에 맞닥뜨려질 수 있잖아요.[37]

---

34) 전민주(2학년 3반 신승희 학생의 어머니) 구술, 유해정 기록, 앞의 글, 416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2015), 앞의 책, pp.76-82.

35) 허영무(2학년 2반 길채원 학생의 어머니) 구술, 배경내 기록, 앞의 글, 416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2015), 앞의 책, p.218.

36) 주디스 버틀러 지음, 양효실 옮김, 『윤리적 폭력 비판: 자기자신을 설명하기』, 인간사랑, 2013, p.147.

37) 이지연(2학년 8반 김제훈 학생의 어머니) 구술, 이호연 기록, 「다른 아이들을 볼 수 있게 된 시간에 감사하며, 서로 부둥켜안고 살아갈 시간을 바라며」, 416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2015), 앞의 책,

나 아닌 다른 존재와 분리되지 않는 인간 존재의 의존성과 근원적인 취약성은 우리를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도록 이끄는 윤리적 자원[38]이다. 우리 자신의 상호의존성과 불완전성은 모두가 고통에 대한 취약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연대의 기반을 형성한다. "슬픔에 젖어 있던 무렵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딸과 아들을 잃은 부모"로부터 진심 어린 위로를 받으면서 경험하게 된 연대와 그로 인한 각성은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모른 체 살았던 게 문제"[39]였다는 뼈아픈 성찰로 이끈다.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을 때 일상적인 애정과 연대의 경험은 우리의 안전망이자 생존 장비가 되며, 궁극적으로 시민사회의 부활을 낳는다.[40] 비슷한 불행을 겪은 이로부터 받은 공감 어린 위로는 "다른 사람의 고충이나 힘든 것들을 보려고 하지 않았던"[41] 삶을 방식을 다시 돌아보게 만듦으로써 "나만 보람있게 잘살면 된다"[42]는 각자도생 담론에 균열을 일으킨다.

그런 면에서 참사 구술 기록물들은 사건의 연도, 희생자 수와 같은 데이터화된 역사와 변별된다. 참사의 리얼리티가 사람들의 마음에 제대로 와 닿도록 만드는 일, 타자의 고통에 눈 감으려 하는 심성을 뒤흔들어 자기 보신의 껍질을 두드려 부수도록 부추기는 것은 예술의 일[43]이다. 세월호 참사 구술 기록물은 재난의 한가운데에 선 이의 슬픔을 사실적으로 재현함으로써 "가슴이 쪼그

---

pp.329-330.

38) 주디스 버틀러 지음(2013), 양효실 옮김, 앞의 책, p.159.

39) 이지연(2학년 8반 김제훈 학생의 어머니) 구술, 이호연 기록, 앞의 글, 416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2015), 앞의 책, p.329.

40) 레베카 솔닛 지음, 정혜영 옮김, 『이 폐허를 응시하라: 대재난 속에서 피어나는 혁명적 공동체에 대한 정치사회적 탐사』. 펜타그램, 2012, p.228.

41) 이지연(2학년 8반 김제훈 학생의 어머니) 구술, 이호연 기록, 앞의 글, 416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2015), 앞의 책, p.330.

42) 위의 글, 같은 쪽.

43) 서경식, 『고통과 기억의 연대는 가능한가?』, 철수와영희, 2010, pp.232-233.

라들 것 같이 아프다는"[44] 부모의 심정을 펼쳐 보인다.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은 부모의 충격과 억울함, 분노에 대한 사실적 재현은 동시대인들의 정동(affect)을 흔들고 다시는 그러한 재난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겠다는 열망에 이르도록 한다. 그 과정은 나도 비슷하게 될 가능성과 인간 존재의 취약성에 대한 이해, 유가족들의 고통에 대한 감정이입의 실천,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잘못된 것은 무엇이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로 이루어져 있다.

> 내가 서해 페리호 사고를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21년 후 세월호 사건을 또 겪은 거지.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건 지금이나 그때나 바뀐 게 없어서야. 아무 것도. (중략)
>
> 누구는 진실을 밝히는 게 뭐 중요하냐. 앞으로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하는데. 썩은 데가 있으면 그곳을 파내고 새 살이 돋아나게 해야 하는데 그냥 두고 새 살이 돋길 바라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못하고 의문만 남기는 법이라면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가 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때 가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냐고.
>
> 안전에 대해서도 자기들 일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야. 내 자식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 못해. 간담회 가면, 내가 우리 자식 물에 빠져 죽지 않게 하려고 수영 가르쳤다고 그런 얘길 해요. 한데 그게 개인이 노력해서 수영 잘해서 될 게 아니잖아. 왜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지 말하는 거지.[45]

한국현대사에서 반복되는 재난의 역사를 연대기화해 보면 반복되는 재난 뒤에는 생명보다 자본의 논리를 더 중요시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놓여 있다. 대구 지하철의 취약한 방재시스템 이면에는

---

44) 박희정(작가기록단), 416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2015), 앞의 책, p.112.

45) 임종호(2학년 9반 임세희 학생의 아버지) 구술, 고은채 기록, 앞의 글, 416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2015), 앞의 책, pp.273-276.

비용절감을 위해 안전을 뒤로 미룬 입찰 경쟁, 인력감축을 통한 만성적자 해결, 대량수송에만 초점을 둔 역사 설계 등이 있었다.[46] 안전 의무가 이윤 추구의 전략에 압도되는 현상은 안전 전략이 통치유용성의 계산을 통해 제한된 결과이다.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의 통치성과 안전 전략과의 관계[47]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푸코의 분석에 의하면 신자유주의에서 문제는 포괄적인 정치권력의 행사를 시장경제의 원리에 어떻게 맞출 것이냐에 있다. 그래서 법률체제 및 사법제도 역시 신자유주의 통치성에 의해 변형된다. 특히 신자유주의 생명정책의 기초 단위는 '기업의 형식을 가진 사회'의 골격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안전 전략 역시 통치유용성[48]의 계산을 통해 제한된다. 이는 자유의 실천에 드는 경제적 비용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관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견

---

46) 박희정 · 이호연, 「지역정치와 비용절감이 밀어낸 '안전'」,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 재난참사기억 프로젝트팀 지음, 『반복된 참사 꺼내온 기억, 대한민국 재난연대기: 재난을 묻다』, 서해문집, 2017, pp.109-118.

47) 이 글에서 신자유주의 통치성과 안전 전략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미셸 푸코 지음, 오트르망 옮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난장, 2014, pp.191-227.

48) 통치성 개념은 푸코의 『안전, 영토, 인구』 4강에서 정식화되었다. 푸코는 '통치성'을 "인구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정치경제학을 주된 지식의 형태로 삼으며, 안전장치를 주된 기술적 도구로 이용하는 지극히 복잡하지만 아주 특수한 형태의 권력을 행사케 해주는 제도·절차·분석·고찰·계측·전술의 총체"로 정의한다. 통치성은 통치실천을 지배하는 합리성, 미시권력에 내재하는 합리성을 의미한다(미셸 푸코 지음, 오트르망 옮김, 『안전, 영토, 인구』, 난장, 2012, pp.162-163).

푸코는 통치성의 문제에서 출발하여 국가 문제에 대한 탐구를 수행한다. 푸코에 의하면 국가는 본질을 갖고 있지 않으며, 보편적인 것도, 그 자체 권력의 독자적 원천도 아니다. 국가는 재원, 투자양식, 결정의 중심, 관리의 형태와 유형, 지방권력과 중앙관청 간의 관계 등을 바꾸거나 이동시키거나 동요시키거나 은밀히 유입시키거나 하는 부단한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이다. 따라서 국가는 다수의 통치성 체제가 불러일으키는 유동적 효과이다(미셸 푸코 지음, 오트르망 옮김(2014), 앞의 책, pp.116-117).

지에 의하면 안전 전략을 포함한 사회정책은 민영화된다. 위험에 대비하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정책의 몫이 아니라 개인의 몫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내가 우리 자식 물에 빠져 죽지 않게 하려고 수영 가르쳤다"[49]는 생존수영 담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가능한 한 개개인이 사적 소유를 실현하여 위험에 대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50]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보장을 통해 개인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그 내부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대면할 수 있는 경제적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근본적인 사회정책은 모든 개인이 일정수준의 소득에 도달할 수 있는 경제성장으로 귀결된다.

> 저녁 7시쯤에 몇몇 부모들이 돈을 걷어서 어선을 빌렸어요. 그때 봤을 때는 배가 그렇게 가라앉지는 않았나봐요. 애 아빠가 다녀와서는 "구조를 전혀 안 해. 보트 같은 것만 주변을 돌고 있어. 그런데 배 안에 공기가 있으면 애들이 살았을 거 같아. 희망을 가져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애한테 기도만 했죠. 살아만 있어달라고. 힘들어도 조금만 견뎌달라고.[51]

---

49) 임종호(2학년 9반 임세희 학생의 아버지) 구술, 고은채 기록, 앞의 글, 416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2015), 앞의 책, p.276.

50) 사회보장의 축소는 자기의 경력을 자기가 입안하고 관리하며 자신의 인적 자본을 높이는 자기-경영 유형의 자기 관리를 촉진하게 된다(사토 요시유키 지음, 김상운 옮김, 『신자유주의와 권력: 자기-경영적 주체의 탄생과 소수자-되기』, 후마니타스, 2014, p.56). 신자유주의에서 노동이란 노동력과 노동시간으로 축소된 상품이 아니라 자본, 즉 능력, 경쟁력이다. 노동자 자신이 그 스스로 일종의 기업으로 등장하는 능력자본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자유주의에서 노동자는 매 순간 노동자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기업가인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된다(미셸 푸코 지음, 오트르망 옮김(2014), 앞의 책, pp.317-320).

51) 정부자(2학년 6반 신호성 학생의 어머니) 구술, 홍은전 기록, 「엄마하고 나하고는 연결되어 있잖아. 그래서 아픈 거야」, 416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2015), 앞의 책, pp.116-117.

그러나 경제성장 담론이 '국가를 통해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진보의 혜택을 구성원 모두가 누리게 된다'는 하이 모더니즘(high modernism)[52]의 비전을 유포하는 것과 달리, 세월호 참사를 통해 대면하게 된 것은 "이 나라가 얼마나 무능한지, 아니 무책임한지"[53]에 대한 통감이다. 학생들부터 구조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TV에서는 전원구조라는 자막이 떴지만 정작 부모들이 어선을 빌려 바다에 나갔을 때 보이는 것은 주위를 돌고 있는 보트뿐, 구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가가 자신이 책임져야 할 공공영역을 하나하나 쪼개어 민영화시키고 그것을 기업의 이윤 추구의 장으로 탈바꿈시킨 까닭에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이 당연한 상황, 즉 신자유주의 시대 국가의 무능력[54]에 직면한 것이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사건',[55] 다시 말해 '주권자들의 생명보다 자본의 논리를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국가가 운영되어왔으며 그런 경향 속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권자들의 생명이 포기될 수 있다는 기민화(棄民化) 가능성을 실제로 상연한 사건'[56]이다. "서로 밀치지도

52) 하이 모더니즘은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국가를 통해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진보의 혜택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획기적인 비전이다.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은 그러한 하이모더니즘이 만들어내는 사회공학의 일부로서, 생산 제일주의를 핵심으로 한다(하이 모더니즘에 대해서는 제임스 C. 스콧 지음, 전상인 옮김, 『국가처럼 보기: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하는가』, 에코리브르, 2010, pp. 145-166).

53) 노선자(2학년 4반 김건우 학생의 어머니) 구술, 정주연 기록, 「나, 백살까지 살려구요」, 416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2015), 앞의 책, p.26.

54) 최원, 「멈춰진 세월, 멈춰진 국가 -신자유주의적 통치성과 폭력의 새로운 양상」, 김종엽 외 13인 지음,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 그린비, 2016, pp.144-145.

55) 박민규, 「눈먼 자들의 국가」, 김애란 외 지음, 『눈먼 자들의 국가』, 문학동네, 2014, p.57.

56) 김홍중, 「마음의 부서짐: 세월호 참사와 주권적 우울」, 한국이론사회학회,

않고 구해줄 줄 알고 줄서서 있었다"[57]는 단원고 학생들과 '구조하지 않은 국가' 사이에 놓인 간극, 재난의 심층을 들추어내는 작업은 바로 그 간극에 대한 심문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3. 어린 10대에서 시민으로: 『다시 봄이 올 거예요』

권력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생명을 에워싸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신체가 통제되어 생산체제로 편입될 것, 인구가 경제 과정에 맞추어져야 할 것, 이 두 가지를 조건으로 비로소 보장되므로 자본주의 발전에서 생명권력은 불가결한 요소이다. 푸코는 『성의 역사1: 앎의 의지』에서 생명권력의 조직화는 두 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는데, '신체에 대한 규율(규율권력)'과 '인구에 대한 생명 정치(안전권력)'가 그 두 축이다.[58] 세월호 참사 역시 규율권력과 안전권력으로 이루어진 자본주의 생명권력 메커니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현재 위치에서 절대 이동하지 마시고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59]라는 안내 방송이 연이어 울려 퍼지고 있었던 탓에 단원고 학생들은 제자리에 묶여 있었고, 사고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아무도 구하지 않았다.[60] 구조를 기다리며 서로서로 "구명조끼를 꺼내서 던져주고 입혀주고 그러면서 계속 가

『사회와 이론』 제26집, 2015. 5, p.149.

57) 노선자(2학년 4반 김건우 학생의 어머니) 구술, 정주연 기록, 앞의 글, 416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2015), 앞의 책, p.24.

58) 미셸 푸코 지음, 이규현 옮김, 『성의 역사1: 앎의 의지』, 나남, 2007, p. 156.

59) 박종대(2학년 4반 박수현 학생의 아버지) 구술, 박현진 기록, 앞의 글,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2015), 앞의 책, p.193,

60) 문종택(2학년 1반 문지성 학생의 아버지) 구술, 김순천 기록, 「대통령과의 5분간의 통화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긴 고통」,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2015), 앞의 책, pp.179-180.

만히 있었"[61]다는 학생들과 "나온 아이들을 그냥 앞에서 건진 것 뿐이지 적극적으로 배에 들어가서 뭘 어떻게 했거나 그런 게 없"[62]었던 국가 사이의 간극은 생명권력의 두 축인 규율권력과 안전권력이 접합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 좀더 엄밀하게 말하면 접합하되 변환되는 지점, 즉 신자유주의 시대 규율권력이 점차 후경으로 물러나고 안전권력이 표면화되는 지점[63]에서 발생한다.

> 구명조끼를 꺼내서 던져주고 입혀주고 그러면서 계속 가만히 있었어요. 배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어야지, 왜냐면 저희보다 그 사람들이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방송에서 돌아다니지 말라고, 특히 단원고 학생들은 거기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바닥으로 조금씩 물이 들어왔어요. 발이 너무 시렵고, 애들은 막 울고, 그런데도 가만히 있었어요. 무서운 줄을 모르고.[64]

> 창문으로 점점 물이 차는 게 보였어요. 객실 불은 꺼지고… 어두워지고 헬기 소리도 막 들리고… 방송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그대로 있었어요.[65]

> 가만히 있으래서 구명조끼 입고 진짜 가만히 있었거든요. 막 무서워서 움직이려는 애들이 많았어요. 불 꺼지고 패닉이 와서 우는 아이들도 있었고. (중략) 저희는 단체실이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혼자 있었

61) 반세윤(세월호 당시 단원고 2학년) 구술, 미류 기록, 「친구를 잃는다는 건」,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2016), 앞의 책, p.56.
62) 장애진(세월호 당시 단원고 2학년) 구술, 이호연 기록, 「제 일이지 않아요?」,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2016), 앞의 책, p.243.
63) 토사 히로유키 지음, 「전지구적 통치성」, 세리자와 가즈야·다카쿠와 가즈미 엮음, 김상운 옮김, 『푸코 이후: 통치성, 안전, 투쟁』, 난장, 2015, p.134.
64) 반세윤(세월호 당시 단원고 2학년) 구술, 미류 기록, 앞의 글,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2016), 앞의 책, pp.56-57.
65) 장애진(세월호 당시 단원고 2학년) 구술, 이호연 기록, 앞의 글,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2016), 앞의 책, p.241.

다면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아요. 무서운데 침착하게 기다렸어요.[66]

안전권력이라고 할 때 '안전'이란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트에 대한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을 의미한다. 2장에서 논의한 대로 신자유주의 시대에 이르러 리스크에 대한 각종 사회보장이 개인의 자기책임 영역으로 이동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적 협력과 연대성의 기반이 취약해졌다. 약자의 생존에 대한 배려 역시 사회 영역에서 점점 더 배제되었다. 안전에 대한 불안은 존재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교육의 위상은 더욱 공고해진다. 교육은 자기책임의 영역으로 이동한 사회보장에 이르는 통로이자, 규율권력을 통해 각자도생 이데올로기를 내면화되는 장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교육의 위상이 공고해질수록 학생들을 유용하고 유순한 주체로 조형하는 규율권력 역시 정교해진다는 데 있다. 생존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자신들이 구조될 것이라고 믿었으며,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 방송의 지시를 따랐다고 한다. 바닥으로 물이 차오르고 창문으로 물이 차는 게 보이는 상황에서도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를 따른 것은 학교라는 규율권력의 장에서 선생님의 지시에 순응하는 학생으로 지내왔던 오랜 시간과 무관하지 않다. "교육은 학생들을 무한 경쟁이라는 각자도생의 길로 몰아넣음으로써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순응적 주체'로 만드는 데 가장 앞장 서 왔다"[67]는 성찰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나타낸다.

"여기 어딘지 모르겠는데 물이 들어와요." "소연아, 니 옆에 누구 있는데?" "담임선생님 있어요." "선생님이 뭐라구 허셔?" "구명조끼 입으라 했어요." "그럼, 선생님 말씀에 잘 따라." 담임선생님이 어른이어

66) 김수연(세월호 당시 단원고 2학년) 구술, 명숙 기록, 「사람들이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2016), 앞의 책, p.263.

67) 김원석, 「교육, 참사를 마주하다: 세월호 참사와 중립성이라는 함정」, 김종구 외, 『세월호라는 기표』, 교육공동체벗, 2019, p.95.

서 저는 판단을 잘 허실거라고 믿었어유. 왜 하필 그때 담임선생님 말씀을 들어라고 혔던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어유. 선생님 말씀 듣지 말고 그냥 밖으로 뛰쳐오라고 혔으면 살았을 텐데. 우리나라가 후진국이 아니니까 구명조끼 입고 바다에 떠있으면 구해줄거라 생각했시유. 왜 선생님은 배가 뒤집어질 판인데 뛰쳐나가란 말을 안 혔을까요. 내가 내 자식을 죽였어유.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괴롭고 눈물이 나유. 아빠가 판단을 잘못해갖고 애를 죽인 것 같아…(울음).

제가 가장 궁금한 건 '우리 애를 살릴 수 있었는데 왜 못 살렸나' 그거예요. 선장이 빠져나올 때 애들을 나오라고만 혔어도 다 살았는듸. 왜 그런 말을 안 혀서 죽였는지…[68]

세월호 참사 이후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은 가슴아픈 연유로 유가족과 형제자매, 생존학생들에게 회한과 분노로 남아 있다. "담임선생님 말씀을 들어라고 했던"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된 판단이 아이를 죽인 것 같다고 괴로워했고, 한 생존학생은 "돌아갈 수 있다면 바로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 애들한테 다 소리를 질러서 밖으로 나가자고 할 것 같"[69]다고 후회하였다. "반 아이들한테 '일단 배가 뒤집힌 상황이면 나가야지 가만히 있으라는 게 말이 되냐, 한번 확인해보겠다' 하고 나갔"[70]거나 "승무원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만 일반인 생존자들이 바다로 뛰어내리라고 한 걸 들은"[71] 경우 세월호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순응적인 주체를 만들어내는 규율권력에 대한 반감은 "제일 끔찍한 건 앞으로 졸업하는 후배들 중에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인

68) 김진철(2학년 3반 김소연 학생의 아버지) 구술, 김순천 기록, 앞의 글,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2015), 앞의 책, pp.104-105

69) 이해지(세월호 당시 단원고 2학년) 구술, 배경내 기록, 「스스로가 강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요」,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2016), 앞의 책, p.304.

70) 조태준(세월호 당시 단원고 2학년) 구술, 배경내 기록, 「이 형아가 너 살릴게」,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2016), 앞의 책, p.78.

71) 김희은(세월호 당시 단원고 2학년) 구술, 이호연 기록, 「피할 수 없는 가야 할 길에 서서」,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2016), 앞의 책, p.185.

식으로 이어졌으며, 세월호 세대들로 하여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전 같은 교육을 받을 수는 없"[72]다고 선언하도록 만들었다. 여기에는 무한경쟁으로 압축되는 신자유주의의 생존 논리로 말미암아 10대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의무라고 공언되어 온 입시와 학업이라는 사적 영역에 갇혀 있지 않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정황을 숙고해보면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주체의 생성을 촉발하는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주체의 생성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권력관계의 장이 어떻게,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변형가능한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체의 해석학』에서 "자기와 자기의 관계 내에서가 아니라면, 종국에는 정치권력에 대한 저항의 일차적이고 궁극적인 지점이 없다"[73]고 했던 푸코의 논의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푸코는 권력관계의 역전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기 윤리의 구축이 근본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자기 윤리를 갖춘 '윤리적 주체'는 성찰을 통해 존재의 변형을 목표로 하고 있다[74]는 점에서 미시권력의 그물망에 포획되는 '순응적 주체'와 변별된다. 윤리적 주체는 자신의 행동규칙을 보편화하여 자기자신을 '규율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개별화하고 변조시킨다.[75] 또한 자신의 자아에 법의 규칙, 운영의 기술, 그리고 윤리, 에토스, 자아의 실천을 부여함으로써 주체에 대한 권력놀이의 지배를 최소화한다.[76] 이

72) 박보나(세월호 희생학생 박성호의 큰누나) 구술, 미류 기록, 「이름의 무게」,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2016), 앞의 책, p.154.

73) 푸코는 통치성을 보다 넓은 의미에서 권력관계의 전략적 장으로 이해하고 권력관계의 유동성·역전 가능성·변형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미셸 푸코 지음, 심세광 옮김, 『주체의 해석학』, 난장, 2007, p.283).

74) 미셸 푸코 지음, 심세광 옮김, 위의 책, pp.484-485.

75) 미셸 푸코 지음, 문경자·신은영 옮김, 『성의 역사2: 쾌락의 활용』, 나남출판, 2006, p.81.

76) 미셸 푸코와의 대담, 「자유의 실천으로서 자아에의 배려: 권력, 자아, 윤리」, 미셸 푸코 외 지음, 정일준 편역, 『미셸 푸코의 권력이론』, 새물결,

러한 맥락에서 『다시 봄이 올 거예요』를 살펴보면, 세월호 참사 생존학생들과 형제자매들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생명권력과 거리를 두고 기존 질서와 기성세대를 응시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월호 세대들은 이러한 응시를 기반으로 윤리적 주체가 된다. 생존학생들과 형제자매들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친구들과 혈육을 잃었지만, 바로 그러한 이유로 당대의 통치 메커니즘에 거리를 설정하고 성찰할 수 있게 된 세대이다. 이들은 자신이 한 일에 책임지지 않고 반성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어른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슬픔과 고통을 윤리적 자원으로 고양시킨다.

> 우리도 어른이 될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저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두려워요. 자기가 한 일도 책임 못 지면서 자기들만 생각하고 반성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른이 될까봐… 그런 어른들을 싫어하면서 그런 사람이 될까봐…[77]

> 행복할수록 눈물이 나고 슬플수록 남을 존중한다. 요즘 제가 되새기는 말이에요. 사고를 겪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행복을 느끼는 매순간에도 늘 슬픔이 동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슬픔과 고통도 뭉치면 더 강해지지 않을까. 고통을 이겨낸 만큼 더 남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러고 싶어요. 그럴 거예요.[78]

자아에의 배려를 핵심으로 하는 주체의 윤리는 항상 타자를 배려하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점에서 타인을 위한 선(善)을 목적으로 하며, 그 안에는 타인과의 관계가 내포되어 있다.[79] 생존학생들과

1995, p.122.

77) 이시우(세월호 당시 단원고 2학년) 구술, 김순천 기록,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2016), 앞의 책, p.161.

78) 조태준(세월호 당시 단원고 2학년) 구술, 배경내 기록, 앞의 글,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2016), 앞의 책, p.89.

79) '순응적 주체'에서 '윤리적 주체'로 전환하는 과정은 일종의 권력의 전환(conversion)이다. 자아가 진정으로 자기자신과의 관계를 정치권력에 저

형제자매들에게 그들의 행동을 변조시켜 규율권력로부터 거리를 두도록 추동하는 것은 재난으로 인해 야기된 친구와 형제자매의 죽음이다. 버틀러가 고찰한 바와 같이 주체는 타인와 고립된 채 책임감이라는 문제를 생각할 수 없으며, 자신이 애도하는 타인의 죽음에 의해서도 구성된다.[80] 그래서 이들에게 윤리는 타인으로부터, 살아남은 이들이 목격했던 동료들의 죽음으로부터 연원한다. 생존학생들은 "애들이 틈 사이로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소리지르면서 손 뻗는 걸 다 봤고 다 느꼈고… 끝내는 애들이 못 나왔"[81]던 참사의 전 과정을 모두 겪은 이들이다. 살아남은 자이기에 "존재 자체가 그분(유가족)들을 슬프게 할 것 같"고, 그러한 까닭에 "희생된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82]을 지닌 채 살아가지만, 다른 누구보다 더 깊이 "슬픔을 통해 내가 무엇을 했고 그 일을 통해 어디까지 왔나"[83]를 돌아보는 존재이다.

"서로 어깨 밟으라고 하면서 올려주고 (중략) 먼저 올라간 애가 밑에 애 끌어올려주"[84]며 생사를 함께했던 친구들이 눈앞에서 유

항하는 원칙적이고 유용한 지점으로 삼기 위해서는 타인의 노예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욕망의 노예 또한 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스스로가 자기자신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관계를 확립하는 과정이다. 자아에의 배려가 발전하는 과정은 타자와의 관계-진리를 말해줄 안내자, 상담자, 친구-를 필요로 한다(미셸 푸코와의 대담, 「자유의 실천으로서 자아에의 배려: 권력, 자아, 윤리」, 미셸 푸코 외 지음, 정일준 편역, 앞의 책, pp.107-124).

80) 주디스 버틀러 지음(2008), 양효실 옮김, 앞의 책, p.80.

81) 이시우(세월호 당시 단원고 2학년) 구술, 김순천 기록, 앞의 글, 416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2016), 앞의 책, p.166.

82) 이시우(세월호 당시 단원고 2학년) 구술, 김순천 기록, 위의 글, 416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2016), 앞의 책, p.167.

83) 조태준(세월호 당시 단원고 2학년) 구술, 배경내 기록, 앞의 글, 416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2016), 앞의 책, p.77.

84) 반세윤(세월호 당시 단원고 2학년) 구술, 미류 기록, 앞의 글, 416세월호 참사 작가기록단(2016), 앞의 책, p.57.

명을 달리했기에,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니까 의지할 사람도 없고 말을 건네주는 사람도 없”[85]음을 깨닫게 되었기에, “고통을 이겨낸 만큼 더 남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86]이 되기를 염원한다. 파커 J.파머의 표현을 빌리면 ‘부서져 흩어지는 대신 부서져 열리는 마음’[87]을 갖게 된 것이다. 살아 있는 자가 그의 동류가 죽어가는 것을 본다면 그는 자신의 바깥에서 존속할 수 있을 뿐이므로, 살아남은 이들은 남은 생을 외존(外存, ex-position)된[88] 채로 살아간다. ‘부서져 열리는 마음’은 10대들에게 입시와 학업이라는 사적 세계로부터 나와 공동의 삶을 직조하는 데 참여하도록 고무한다.

> 진상규명은 필요한 일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선까지 최대한 해야죠. 아빠가 항상 말해요. “지금은 부모들이 하지만 나중에 너희가 해야 된다.” 그 말이 맞는 거 같아요. 그게 아빠 일이 아니라 제 일이지 않아요? 당연히 해야죠. 그동안은 미성년자였지만 이제 성인이잖아요. 그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요.
>
> 해결이 되려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끝나는 게 진짜 몇십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89]

『다시 봄이 올 거예요』는 10대들이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대상, 혹은 미성숙하고 수동적인 어린 존재로 머물러 있는 것이

85) 조태준(세월호 당시 단원고 2학년) 구술, 배경내 기록, 앞의 글,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2016), 앞의 책, p.83.

86) 조태준(세월호 당시 단원고 2학년) 구술, 배경내 기록, 위의 글,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2016), 앞의 책, p.89.

87) 파커 J.파머 지음, 김찬호 옮김,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글항아리, 2018, p.236.

88) 장-뤽 낭시 지음, 박준상 옮김, 『무위의 공동체』, 인간사랑, 2012, pp. 48-188.

89) 장애진(세월호 당시 단원고 2학년) 구술, 이호연 기록, 「제 일이지 않아요?」, 416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2016), 앞의 책, p.246.

아니라 "유가족으로서 형제자매로서 세월호를 알리겠다는 마음으로 활동"[90]하면서 "부모님 세대에서 밝혀내지 못하면 우리 세대에서라도 꼭 밝혀낼 것"[91]을 다짐하는 시민적 주체로 변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스스로를 구성하는 행동과 실천, 특수한 사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치적 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민주주의의 주체가 된다[92]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세월호 참사를 온몸으로 겪은 10대들은 행동과 실천을 통해 공공의 삶을 엮어가는 시민적 주체로 성장한다.

>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슬프고 자극적인 기사들을 그냥 소비했던 거였더라고요. 오열하는 부모님들, 실려나오는 애들, 그런 것들만 보고, 이후에 어떻게 마무리됐는지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울고, 슬퍼하고, 애도했지만 거기에서 끝이었어요. 416을 겪으며 보니까 해병대캠프 사건도 아직 처벌도 제대로 안 됐고 여전히 진행중인 상태더라고요. 그니까 제가 사람들한테 뭐라 못하겠는 거예요. 왜 슬퍼만 하고 행동하지 않느냐고. 그런 사람들에게 나쁘다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93]

> 추모제 같은 데서 사람들이 촛불 들고 꽉 차 있는 모습 보면 되게 뭉클해요. 어떻게 보면 남의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위로를 하고 있구나, 함께 슬퍼하고 있구나 싶어서 감사하고,

---

90) 김예원(세월호 희생학생 김동혁의 동생) 구술, 배경내 기록, 「오빠가 주고 간 선물」, 416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2016), 앞의 책, p.295.

91) 남서현(세월호 희생학생 남지현의 언니) 구술, 정주연 기록, 「우리는 이제 숨죽이지 않을 것이다」, 416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2016), 앞의 책, p.333.

92) 서용순,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민주주의로부터 '인민'을 구하기」, 알랭 바디우 외 지음, 서용순·임옥희·주형일 옮김, 『인민이란 무엇인가』, 현실문화, 2014, p.194.

93) 남서현(세월호 희생학생 남지현의 언니) 구술, 정주연 기록, 앞의 글, 416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2016), 앞의 책, p.318.

> 저렇게 남의 슬픔에 공감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어른이지, 그런 생각도 들고.[94]

> 기사랑 악플 보면서 계속 화가 나 있었어요. 그런데 안산에서 서울까지 도보행진을 하면서 화가 조금씩 사그라졌던 것 같아요. 거의 마지막 코스에 진짜 천 명? 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양쪽에 서서 계속 박수 쳐주고 같이 울어주시고. 가족만큼 울어주시는 분들이 신기했어요. 이웃 분들도 그렇게까지 안 울어주는데 그분들은 오빠랑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같이 아픔을 공유해주시는 게 감사하고 위로가 됐어요.[95]

인용문에서 구술자는 세월호 참사가 보도되는 프레임을 사유 대상으로 삼아 과거의 자신을 형성했던 언론매체의 인식틀을 외부의 시선으로 조망한다. 울고 슬퍼하고 애도했지만 거기에서 멈출 때 슬프고 자극적인 기사들을 '소비'한 것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차린다. 슬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이상, 한국 현대사에서 반복되고 있는 재난의 구조를 극복할 수 없음을 인식한 것이다. "삶 자체가 엎어진 것 같"고 "뒤죽박죽이 돼서 어디를 어떻게 가야할지도 모르겠고 여러 갈래 길에서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96]던 세월호 세대들은 추모제에서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꽉 차 있는 모습을 보면서 타인의 슬픔에 공감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되면서, 안산에서

---

94) 이정민(세월호 희생학생 이지민의 동생) 구술, 명숙 기록, 「언니한테 카톡을 보내요」, 416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2016), 앞의 책, p.99.

95) 김채영(세월호 희생학생 김동영의 동생) 구술, 이호연 기록, 「내 마음의 시간들」, 416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2016), 앞의 책, pp.178-179.

96) 박예나(세월호 희생학생 박성호의 누나) 구술, 미류 기록, 앞의 글, 「남아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416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2016), 앞의 책, p.220.

서울까지 도보행진을 하면서 많은 이들이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면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연대하는 중심으로 자리잡게 된다. "세월호 자체는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사고 이후에 청소년들이 이런 사회문제들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거 같아 의미있다"[97]는 생존학생의 증언이나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사회나 정치에 더 관심을 갖게 된 거"[98]라는 형제자매의 깨달음은 미성숙의 프레임을 넘어 시민 주체로 변모하는 10대들의 고양을 보여준다.

4. 나가며

재난의 글쓰기에는 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처한 이의 절박한 심정이 배어 있으며, 오랜 고통 끝에 비로소 생으로 복귀하는 이의 사유와 성찰이 녹아들어 있다. 여기에는 그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연원하는지 캐묻는 사회적인 과정이 심도 있게 수반된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재난의 글쓰기를 추동하는 근원적인 힘은 고통을 '서사화할 권리'이다. 고통을 서사화할 권리란 고통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자연스럽다고 여기는 이념과 이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논쟁하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관한 역사적 성찰을 담고 있다. 고통을 서사화할 권리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써 역사를 재구성할 권위를 획득한다는 점이다. 고통을 겪은 이는 비극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묘사함으로써 부상과 불의의 기억

97) 이보라(세월호 당시 단원고 2학년) 구술, 명숙 기록, 「이름의 무게」, 416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2016), 앞의 책, p.203.
98) 김채영(세월호 희생학생 김동영의 동생) 구술, 이호연 기록, 앞의 글, 416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2016), 앞의 책, p.178.

을 생생하게 살려낸다. 서사는 그러한 기억 행위를 통하여 역사적 재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창조적인 잠재력을 획득한다.[99] 여기에는 고통의 경험을 누락하지 않고 사실대로 기록해 전달하려는 윤리적 실천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글에서 분석한 텍스트들은 모두 재난의 고통을 겪은 당사자의 언어로 복원한 기록들, 즉 재난을 겪은 당사자에 의해 서사화할 권리들이 구현된 기록들이다. 살아남은 이들의 의무, 즉 죽은 자들의 기억을 서사화할 의무는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사회문화적 동의와 맞물려 기억을 통한 연대를 이끌어낸다. 재난의 당사자들은 '살아남아 증인이 되는 자(supérstes)', 즉 '어떤 일을 끝까지 겪어낸 사람, 어떤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했고 그래서 그 일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며, 정의와 진실의 이름으로 증언하는 이들[100]이다. 재난의 겪은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그들이 엮는 이야기로 재난의 역사가 기록될 때 무엇이 가능해질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해명은 세월호 참사 기록물의 장르적 특성과도 연관되어 있다.

참사 기록물은 '재난의 고통을 겪은 당사자'를 서사의 주체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고통을 겪은 당사자야말로 '서사화할 권리'를 표현하는 가장 적실한 주체임을 보여준다. 참사 기록물들은 공통적으로 구술자의 1인칭 나레이션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데, 이는 고통을 겪은 당사자가 재난의 경위와 그 구조를 따져 묻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서사 전략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이 구술자의 관점임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서사 전략은 객관적으로 제시되는 진리의 자리를 해체하는 데 효과를 발휘한다. 재난

99) 고통을 서사화할 권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함. Homi K. Bhaba, "On Writing and Rights: Some Thoughts on the Culture of Human Rights", http://www.ourcommonfuture.de/fileadmin/user_upload/dateien/Reden/Bhabha_keynote_final.pdf(2019. 8. 30 검색).

100) 조르조 아감벤 지음, 정문영 옮김,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문서고와 증인』, 새물결, 2019, pp.22-51.

기록의 이러한 프레임은 객관성이라는 것이,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진실이 구성되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재현의 한 방법일 뿐임[101]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세월호 참사 기록물은 청자/독자들로 하여금 유가족에 의해 주관적으로 구성된 메시지를 해석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청자/독자들이 스스로 재난의 역사를 반추하고 성찰하도록 이끈다.

> 서사(narrative)는 우리의 여러 선택에 동기로 작용하는 가치들을 소통하도록 해준다. 서사는 가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치들을 구체화하고 소통한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행동하도록 서로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며, 위험을 감수할 용기를 찾을 수 있고, 가능성을 탐구하며 불가피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두 가치들을 공유하는 경험을 통해서이다.[102]

재난에 대한 기억과 그로 말미암은 동시대에 대한 성찰을 역사적 전환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행동과 실천이 필요하다. 이때 기억과 성찰을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주는 매개체가 바로 서사이다. 서사는 기억과 성찰, 실천에 오롯이 자리잡은 가치들을 N개의 이야기를 통하여 구체화함으로써 청자/독자를 소통하고 관계 맺을 수 있도록 하며,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지평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이때 N개의 이야기는 재난의 기억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휘발되지 않도록 보

---

101) 니콜스(Nichols)에 의하면 객관성은 가치가 배제된 접근법도, 진실을 보장하는 접근법도 아니다. 따라서 어떠한 기록 영화도 현실을 객관적·중립적으로 포착할 수 없다. 오히려 다큐멘터리 제작진 자신을 작품 속에 드러내는 것이 진실을 담아낼 수 있는 효과적이고 진실한 방법이다(최현주, 『다큐멘터리와 사실의 재현성』, 한울 아카데미, 2018, pp.90-91).

102) Marshall Ganz, "What is public narrative?", http://marshallganz.usmblogs.com/files/2012/08/Public-Narrative-Collective-Action-and-Power.pdf, pp.288-289(2019. 12. 30. 검색).

존하고 공통된 기억으로 사람들을 촘촘하게 엮는 미세한 그물망과 같다. 서사는 또한 느낌조차 새어나오기 힘들 정도로 억눌려 있는 슬픔을 하나하나 풀어 이야기로 만들고, 그 속에서 슬픔을 멈추지 않을 권리를 포착하여 사회적 슬픔으로 승화시킨다. 그것이 증언과 기억, 그리고 그것을 엮어내는 서사의 사회적 의미이다. 세월호 유가족 육성기록 『금요일엔 돌아오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사랑하는 이의 상실로 인한 지극한 슬픔은 우리의 삶이 본질적으로 외존(外存)되어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의존성을 들추어냄으로써 각자도생 이데올로기에 갇혀 있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허구성을 폭로한다. 새로운 주체로의 변이가능성은 그러한 폭로의 순간 생성된다.

재난의 순간을 증언하고 청취하는 동안, 그리고 서사로 엮고 기록하는 동안, 증언하는 이의 슬픔은 오히려 나를 추궁하고 심문하는 감정[103]으로 되돌아온다. 우리는 어째서 생명보다 자본의 논리를 더 중요시하는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안전보다 이윤을 더 우선시할 때 이윤의 무한 증식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규율권력과 안전권력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세월호 참사는 규율권력과 안전권력이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진 자본주의 생명권력의 작동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규율권력과 안전권력은 생명권력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작동하는 방식은 상이하다.[104] 규율권력이 포드주의적인 사회적 규제양식이

---

103) 신형철, 「당신의 지겨운 슬픔」,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한겨레출판, 2018, p.25.

104) 규율권력은 개별 주체를 미시권력의 그물망 안으로 포획하여 허용과 금지의 권력관계를 내면화하도록 하고, 유용하면서도 순종적인 신체를 만들어 낸다(미셸 푸코 지음, 오생근 옮김, 『감시와 처벌』, 나남, 2000, pp.205-299). 이에 비해 안전권력은 개개인을 전면적·수동적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대신 환경을 만들어내고 조직하며 정비함으로써 인구 전체

라면,[105] 안전권력은 시장 원리가 사회의 모든 영역을 뒤덮도록 만드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통치 기술이다. 현 단계에서 규율권력과 안전권력은 상호 보완하며 작동하고 있으며, 학교·병원·감옥으로 대표되는 규율 장치들은 신자유주의적 통치하에서도 확실하게 계속 존재하면서 개인들을 규범화[106]한다. 학교와 같은 교육장치는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에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로서,[107] 미시적 일상 속에서 주체를 재생산한다. 수학여행은 이러한 학교교육의 연장에 놓여 있으며, 세월호 참사는 규율권력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장으로서의 학교교육에 대한 성찰을 촉발하였다.

자본주의 생명권력의 두 축인 규율권력과 안전권력은 개인의 힘으로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압적인 존재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체가 거대한 구조 안의 미미한 개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권력 안에 있고 누구도 권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해서 권력의 절대 외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저항 지점은 오히려 권력망의 도처에 현존[108]한다. 푸코에 의하면 권력관계의 유동성과 역전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급한 것은 자기윤리의 구축이다. 여기서 자기윤리란 자기자신을 응시하는 시선의 훈련을 통하여 자기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세계 전반과 우리 자신에게 부과되는 통치를 성찰함으로써 진실을 향해 열리는[109] 주체의 윤리를 의미한다. 세계와 자기 자신에게 부과되는

를 통치한다(미셸 푸코 지음(2012), 오트르망 옮김, 앞의 책, pp.48-104).

105) 낸시 프레이저 지음, 김원식 옮김, 「훈육에서 유연화로?-지구화의 그림자 속에서 푸코 다시 읽기」, 『지구화 시대의 정의: 정치적 공간에 대한 새로운 상상』, 그린비, 2010, p.199.

106) 사토 요시유키 지음, 김상운 옮김, 『신자유주의와 권력: 자기-경영적 주체의 탄생과 소수자-되기』, 후마니타스, 2014, p.85.

107) 루이 알튀세르 지음, 김동수 옮김,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아미엥에서의 주장』, 솔, 1998, p.99.

108) 미셸 푸코 지음, 이규현 옮김, 앞의 책, p.115.

통치성을 사유의 대상으로 삼고 있을 때, 주체를 포획하는 자본주의 생명권력의 지배는 최소화될 수 있다. 『금요일엔 돌아오렴』에서 발견되는 각자도생 이데올로기의 균열, 그리고 『다시 봄이 올 거예요』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10대들의 고양은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

기억은 작고 힘없는 자들의 도구가 되는 반면, 망각은 크고 힘있는 자들의 이익에 봉사한다. 그러한 이유로 기억은 힘의 논리에 맞서는 대안적인 도덕적 상상력[110]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이들의 증언과 기록은 분명 이윤이 생명보다 우선시되는 시대의 비극성을 생생하게 남길 것이다. 증언하고 기록하는 행위는 훗날 그러한 재난의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기반을 남긴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시대의 비극성 속에서도 '타인을 위한 선(善)을 목적으로 하는' 주체의 윤리가 생성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 줌의 희망을 남길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416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 『금요일엔 돌아오렴: 240일간의 세월호 유가족 육성기록』, 창비, 2015.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 『다시 봄이 올 거예요: 세월호 생존학생과 형제자매 이야기』, 창비, 2016.

---

109) 인식행위를 통해 진실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앎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변화를 가져오는 실천과 경험이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변형함으로써 현재의 자기자신과는 다르게 될 때, 주체는 비로소 진실에 도달할 권리를 갖는다(미셸 푸코 지음, 심세광 옮김, 앞의 책, p.59).

110) 지그문트 바우만 · 레오니다시 돈스키스 지음, 최호용 옮김, 『도덕적 불감증』, 책읽는 수요일, 2015, p.237.

2. 논문

곽은희, 「슬픔의 공동체와 재난의 글쓰기」,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제77집, 2016. 8, pp.91–116.
김원석, 「교육, 참사를 마주하다: 세월호 참사와 중립성이라는 함정」, 김종구 외, 『세월호라는 기표』, 교육공동체벗, 2019, pp.93–104.
김형중, 「문학과 증언: 세월호 이후의 한국문학』,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감성연구』 제12집, 2016. 3, pp.31–59.
김홍중, 「마음의 부서짐: 세월호 참사와 주권적 우울」, 한국이론사회학회, 『사회와 이론』 제26집, 2015. 5, pp.143–186.
박민규, 「눈먼 자들의 국가」, 김애란 외 지음, 『눈먼 자들의 국가』, 문학동네, 2014, pp.45–65.
박희정 · 이호연, 「지역정치와 비용절감이 밀어낸 '안전'」,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 재난참사기억 프로젝트팀 지음, 『반복된 참사 꺼내온 기억, 대한민국 재난연대기: 재난을 묻다』, 서해문집, 2017, pp.97–138.
복도훈, 「애도와 인륜성」, 『말과 활』 5, 2014. 7–8월호, pp.62–70.
서용순,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민주주의로부터 '인민'을 구하기」, 알랭 바디우 외 지음, 서용순 · 임옥희 · 주형일 옮김, 『인민이란 무엇인가』, 현실문화, 2014, pp.185–198.
신형철, 「당신의 지겨운 슬픔」,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한겨레출판, 2018, pp.19–28.
정원옥, 「재난 희생자들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 재난참사 기억프로젝트팀 지음, 『반복된 참사 꺼내온 기억 대한민국 재난 연대기: 재난을 묻다』, 서해문집, 2017, pp.60–63.
조병희, 「세월호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기획, 장덕진 외 지음, 『세월호가 우리에게 묻다』, 한울아카데미, 2015, pp.18–48.
천정환, 「'세월', '노동', 오늘의 '사실'과 정동을 다룰 때 - 논픽션과 르포의 부흥에 부쳐」, 『세계의 문학』 155호, 2015년 봄호, pp.184–200.
천정환, 「가족들과 한국 민주주의」, 『자음과 모음』 제25호, 2014, pp.258–269.
최성은, 「폴란드 수용소 문학(Literatira Obozowa)에 나타난 역사적 현실의 미학적 구현방식에 관한 연구(2)–소비에트 강제노동 수용소를 다룬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아시아 · 중동부유럽학회, 『동유럽발칸학

제13권 제1호, pp.189–226.
최원, 「멈춰진 세월, 멈춰진 국가–신자유주의적 통치성과 폭력의 새로운 양상」, 김종업 외 13인 지음,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 그린비, 2016, pp.128–149.
황종연, 「국가재난시대의 민주적 상상력」, 김애란 외 지음, 『세월호를 바라보는 작가의 눈: 눈먼자들의 국가』, 문학동네, 2014, pp.119–135.
낸시 프레이저 지음, 김원식 옮김, 「훈육에서 유연화로?–지구화의 그림자 속에서 푸코 다시 읽기」, 『지구화 시대의 정의: 정치적 공간에 대한 새로운 상상』, 그린비, 2010, pp.197–218.
루이 알튀세르 지음, 김동수 옮김,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아미엥에서의 주장』, 솔, 1998, pp.75–130.
미셸 푸코와의 대담, 「자유의 실천으로서 자아에의 배려: 권력, 자아, 윤리」, 미셸 푸코 외, 정일준 편역, 『미셸 푸코의 권력이론』, 새물결, 1995, pp.99–126.
토사 히로유키 지음, 「전지구적 통치성」, 세리자와 가즈야・다카쿠와 가즈미 엮음, 김상운 옮김, 『푸코 이후: 통치성, 안전, 투쟁』, 난장, 2015, pp.129–164.
프로이드 지음, 윤희기・박찬부 옮김, 「슬픔과 우울증」,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열린책들, 2019, pp.239–265.

3. 단행본

서경식, 『고통과 기억의 연대는 가능한가?』, 철수와영희, 2010.
최현주, 『다큐멘터리와 사실의 재현성』, 한울 아카데미, 2018.
레베카 솔닛 지음, 정혜영 옮김, 『이 폐허를 응시하라: 대재난 속에서 피어나는 혁명적 공동체에 대한 정치사회적 탐사』, 펜타그램, 2012.
모리스 블랑쇼 지음, 박준상 옮김, 『카오스의 글쓰기』, 그린비, 2012.
미셸 푸코 지음, 오생근 옮김, 『감시와 처벌』, 나남, 2000.
미셸 푸코 지음, 문경자・신은영 옮김, 『성의 역사2: 쾌락의 활용』, 나남출판, 2006.
미셸 푸코 지음, 이규현 옮김, 『성의 역사1: 앎의 의지』, 나남, 2007.
미셸 푸코 지음, 심세광 옮김, 『주체의 해석학』, 난장, 2007.
미셸 푸코 지음, 오트르망 옮김, 『안전, 영토, 인구』, 난장, 2012.
미셸 푸코 지음, 오트르망 옮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난장, 2014.
사토 요시유키 지음, 김상운 옮김, 『신자유주의와 권력: 자기–경영적 주체의

탄생과 소수자-되기』, 후마니타스, 2014.
장-뤽 낭시 지음, 박준상 옮김, 『무위의 공동체』, 인간사랑, 2012.
제임스 C. 스콧 지음, 전상인 옮김, 『국가처럼 보기: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하는가』, 에코리브르, 2010.
조르조 아감벤 지음, 정문영 옮김,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문서고와 증인』, 새물결, 2019.
주디스 버틀러 지음, 양효실 옮김, 『불확실한 삶: 애도와 폭력의 권력들』,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8.
주디스 버틀러 지음, 양효실 옮김, 『윤리적 폭력 비판: 자기자신을 설명하기』, 인간사랑, 2013.
지그문트 바우만 · 레오니다시 돈스키스 지음, 최호용 옮김, 『도덕적 불감증』, 책읽는 수요일, 2015.
파커 J.파머 지음, 김찬호 옮김,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글항아리, 2018.
호미 바바 지음, 나병철 옮김,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2002.
Homi K. Bhaba, “On Writing and Rights: Some Thoughts on the Culture of Human Right”, http://www.ourcommonfuture.de/fileadmin/user_upload/dateien/Reden/Bhabha_keynote_final.pdf(2019. 8. 30. 검색).
Homi K. Bhabha, “The Right to Narrate”, http://www.harvarddesignmagazine.org/issues/38/the-right-to-narrate(2019. 6. 30. 검색).
Marshall Ganz, “What is public narrative?”, http://marshallganz.usmblogs.com/files/2012/08/Public-Narrative-Collective-Action-and-Power.pdf(2019. 12. 30.검색).
Slavoj Žižek and Glyn, *Conversation with Žižek*, Cambridge, UK: Polity Press, 2004.

(**투고일**: 2020. 8. 14 **심사완료일**: 2020. 9. 16 **게재확정일**: 2020. 9. 18)

곽은희
소 속: 동아대학교 기초교양대학
주 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하단동) 동아대학교
전자우편: keh100@dau.ac.kr

[Abstract]

Record of Disaster, Solidarity through Memory

Kwak, Eun-he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records of the Sewol ferry disaster as one of the writings of disasters, and to examine how the records of disasters lead to solidarity through memory. In this article, I think that it was "the right to narrate" that triggered the record of disasters, and expand the subject text of this study to the nonfiction genre. First, I analyze the 『Please Come Back on Friday』, the voice record of the bereaved families of the Sewol ferry disaster, and examine why all people are potentially forced to become bereaved families, in terms of 'memory, history, and reflection'. Second, I analyze the content of 『Spring Will Come Again』, and look at how the memories of surviving students and the brothers and sisters of the victims lead to critical questions and practices about the world. Remembering a disaster is like exploring the depths of a disaster by remembering the moment of pain even in the midst of extreme sadness. This work is political in that it allows us to reflect on the issue of neo-liberalistic governance, which reveals its deep structure in the midst of disaster, and allows us to think about alternative horizons. In this paper, I investigate how the N narratives containing N pains can lead to solidarity beyond a personal level, and trace how bereaved families, surviving students, and the brothers and sisters of the victims transform into new subjects.

Key words: disaster, Ferry Sewol, pain, right to narrative, record, memory, solidarity, sorrow, exposition, discipline power, safety power, solidarity, neo-liberalism, governance